

황금돼지띠 CEO들의 새해 경영

“행운·재물運으로 위기 극복!
바라는대로 다 돼~지”



산업계

올해 산업계 전망은 그야말로 암울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나마 조선업 등 일부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어떤 악재가 발생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는 1959년생, 황금돼지띠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목받는 이유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과 몰락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황금돼지띠 CEO 들 활약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금돼지띠 CEO들에게 2019년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재계가 세대 교체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경영자 연령대를 50대로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60세를 맞은 1959년생 CEO들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그룹에서는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대표적인 황금돼지띠 CEO다. 삼성SDI 경영관리 감사 담당과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 등을 거친 재무전문가다. 작년부터 사장 임무를 수행해 전년보다 영업이익을 80%나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육현표 에스원 사장 역시 황금돼지띠 CEO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기획팀과 삼성물산, 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두루 거친 기획 전문가다. 에스원에서는 2015년부터 사장으로 활약해왔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황금돼지띠 CEO다. 1986년부터 금호그룹에 입사해 아시아나항공 자금담당과 경영관리본부장, 아시아나IDT 사장 등 재무 전문가로 활약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우외환에 빠진 지난 9월 사장으로 깜짝 발탁, 4분기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에는 아시아나항공 실적을 정상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사장

이희명 포스코엠텍 대표도 1959년생 황금돼지띠 CEO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안정적인 경영으로 재신임을 받았다.

1971년생 돼지띠 CEO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조현상 효성 총괄 사장 활약을 가장 기대할만하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3남으로, 최근 효성 지분을 21.42%로 늘리며 2대 주주를 확고히 했다. 형인 조현준 회장이 가지고 있던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효성으로 넘기면서, 조현상 사장은 올해부터 사실상 효성첨단소재 경영을 책임지게 됐다.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의 외아들인 강호찬 넥센타이어 사장은 1971년생 돼

지띠다. 2013년부터 넥센타이어를 경영해왔다. 지난해에는 넥센타이어가 독일과 미국에 R&D 센터를 오픈하는 등 경영 성과를 이어왔으며, 올해에는 우리나라 마곡에 R&D 센터를, 체코에 생산공장을 열 계획,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나성균 네오위즈홀딩스 대표도 기대를 한몸에 받는 돼지띠 CEO 중 한 명이다. 1997년 네오위즈를 창립한 후 여전히 네오위즈를 진두지휘하는 중이다. 지난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국내PC방에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서비스 사업도 따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유통업계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유통업계 돼지띠 최고경영자(CEO)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내년에도 유통업계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침체된 유통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돼지띠 유통사 대표 중에서는 1923년생 한영대 BYC 회장이 최고령으로 가장 나이가 많다. 그리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이영희 영원무역 부회장이 1947년생 돼지띠이다.

새해에는 특히 1959년생 돼지띠 CEO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 함영준 오뚜기 회장, 이경재 오리온 대표가 해당된다. 윤석춘 하림 대표,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 서원범 동원테크팩솔루션 대표, 이경배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전태진 BGF포스트 대표이사 등도 동갑이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는 내년 기존 사업 내실 강화 뿐만 아니라 신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롯데닷컴을 흡수합병해 이커머스 사업본부를 신설한 롯데쇼핑은 2020년까지 롯데 대표 유통 7개사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함영준
오뚜기 회장

구축하고 매출을 2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갯뚜기’라는 애칭이 붙은 착한 기업의 CEO,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행보도 기대된다. 2010년 오뚜기의 지휘봉을 잡은 함 회장은 연구개발과 신규 투자, 신제품 출시에 집중하며 1979년 매출 100억원에 불과했던 오뚜기를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매출 2조원대 회사로 키워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진라면은 누적 판매량 50억개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후발주자로 뛰어든 즉석밥 시장에서는 농심을 제치고 CJ제일제당을 바짝 뒤쫓는 확고한 2위로 올라섰다. 2019년에도 종합 식품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 사장

이경재 오리온 대표는 사업다각화에 집중한다. 오리온은 제과업체에서 탈피해 건강기능식품과 생수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노바레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 로빈슨 파마와 독점 관계약을 맺은 ‘US 닥터스 클리니컬’ 신제품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에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용암수 생산공장을 건립 중이다.

하림은 사료 전문 기업이지만 HMR 등을 통해 종합식품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윤석춘 하림 대표는 내년말 즉석밥을 비롯한 100여종의 HMR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 익산시 함



윤석춘
하림 대표이사 사장

열읍 소재 익산 4산업단지에 하림 푸드 콤플렉스를 건립 중이다. 총 투자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복합쇼핑몰 CEO 중에서는 양창훈 현대아이파크몰 대표와 박주형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가 1959년생 돼지띠이다.

고위 임원 중에서도 돼지띠의 활약을 기대해볼만하다. LG생활건강의 허성 부사장, 이천구 부사장, 김재홍 전무, 권혁경 상무 등이 1959년생이다. 식품업계에서는 대상의 최성수 식품BU 글로벌 본부장, 임병용 식품BU 순창공장장이 1959년생 돼지띠다. 농심의 이병학 전무, 이동진·정성욱·정길준 상무도 나이가 같다.

/신원선 기자 tree6834@